

01 교회소식

축복의 시간에 함께하다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 '2013 만민 하계수련회', 해외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잊지 못할 축복의 자리에 함께했다.

02 생명의 말씀

온 영

지난 8월 5일,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온 영'(히 10:22)이라는 주제로 교육 말씀을 증거했다.

03 포토뉴스

동서남북에서 불어온 하나님 사랑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교육과 만민이 하나 된 체육대회, 아름다운 찬양의 향을 울린 캠프파이어는 은혜와 감동 자체였다.

04 간증

"안 들리던 귀가 들리고 안 보이던 눈이 보여요"

교육 첫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무수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 수많은 간증 중 일부를 소개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만민뉴스

제595호 2013년 8월 1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저요”

해외 22개국 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 만민 하계수련회 참석



기사와 표적이 가득했던 '2013 만민 하계수련회'를 통해 해외 목회자와 성도들은 시종 성경의 권능을 체험하며 한 차원 높은 믿음을 갖게 됐고, 국내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사진은 수련회 셋째 날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 점핑파크 특설무대에서 열린 캠프파이어①~⑤, 둘째 날 체육대회⑥, 마지막 날 권능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된 기적의 현장 무안단물터(출 15:25)를 방문해 침수하기도 했다).

전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를 둔 우리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성도들은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만나 응답과 치료의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보는 것이 신앙의 비전이기도 하다.

2006년 전교인 하계수련회 이후 8년 만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만민 하계수련회가 열려 해외 22개국에서 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았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교육과 체육대회, 캠프파이어 등에 참여했으며, 8월 8일에는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된 기적의 현장, 무안단물터(출 15:25)를 방문해 침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몽골어 8개 언어로 통역된 '온 영'(히 10:22)이라는 주제의 이재록 목사 첫날 교육을 통해(2면 참조) 목자의 눈물의 열매로 나온 만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마음 깊이 깨달았다.

특히 교육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목사의 기도로 오던 비가 멈추는 놀라운 기사를 목도하며 믿음이 더해졌다(3면 참조). 스위스 굴바하르 슌들러 성도는 "이재록 목사님께서 함께하시는 수련회이니만큼 기사와 표적을

기대하며 가족과 함께 참석했는데, 첫날부터 오던 비가 멈추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 후 이어진 이 목사의 환자기도를 통해 무수한 성도가 치료 역사를 체험했다(4면 참조). 인도 로빈슨 빅터 셀반 목사는 "이재록 목사님의 단에서 해 주시는 환자기도를 받고 요산증으로 인한 무릎 통증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라고 간증했다.

둘째 날에는 국내 지교회 성도들과 한 팀을 이뤄 체육대회에 출전해 단체 우승을 차지했으며, 셋째 날 캠프파이어 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향을 울려 드리며 갖가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았다.

싱가포르만민교회 에스더 류 성도는 "당뇨로 인해 심장 혈관이 막혀 통증이 있었는데, 환자기도를 받은 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캠프파이어 때에는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어 뛰면서 찬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은 체육대회를 마친 후 이희진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믿음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기뻐했으며, 해외 성도들은 이희선 목사(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의 교육을 통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진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겼다고 고백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캠프파이어는 감동 자체였어요”

아나스타시아 콜레소바 자매
(에스토니아 진리의 근원 교회)



하나님께서도 하계수련회 첫날부터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교육 시작 때쯤 비가 쏟아졌는데, 이재록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자 얼마 후 두터운 먹장구름이 물러가고 비가 멎었으며 맑은 밤하늘이 펼쳐져 별이 보였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해외 주의 종과 성도들, 한국의 여러 지교회가 한 팀이 돼 본교회의 세 팀과 경합을 벌인 체육대회도 멋졌습니다. 서로 하나 돼 순종해 가는 모습이 참으로 은혜로웠지요.

특히 이재록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캠프파이어는 감동 자체였습니다. 찬양과 멘트 하나하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진한 사랑이 느껴졌지요. 만민 하계수련회를 통해 은혜와 감동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22)

금번 하계수련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온 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관장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됩니다. 온 영의 증거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됨’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이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맞추는가’ 하는 것이었지요. 둘째는,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 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충성’ 즉 영적인 충성이었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을 해야 하지요.

이러한 온 영의 세 가지 기준에 자신을 비춰 보면 온 영에 얼마나 가까운지, 영에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영에 얼마나 가까운지, 믿음의 반석에 얼마나 가까운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온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인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저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사실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니었지요. 제가 해야 했던 일은 공의로 비추어 볼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영혼들에게 다시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소돔의 심판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롯과 그의 딸들이 아브라함의 간구로 인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일에는 의인의 간구가 필요했지요(약 5:16).

단지 의인의 자격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공의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기에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이 필요했지요. 즉 제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만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거의 매일같이 계속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범죄해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수도 없이 생겨났지요. 이런 상처와 고통이 고스란히 제 몸에도 나타났고 그때마다 극심한 경련과 싸워야 했습니다. 위장 장애를 비롯한 여러 고통 가운데 기(氣)가 다 빠져 제로 상태가 된 채 공의의 값을 치르고 또 치러야 했지요.

그러니 제가 어찌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시간, 단 일 분이라도 마음 편할 수가 있었겠고, 참된 힘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항상 살피주며 때로 힘을 주고 돌아야 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늘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했지요. 그들이 믿음의 반석에서 고 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 또 한편으로는 근본의 소리를 100% 찾아 말하기 위한 훈련을 끊임 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제게 주어질 수많은 영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계 21, 22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게는 여러분 모두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야 할 생명같이 소중한 양 떼입니다. 범죄해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만을 위해 공의의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라도, 새신자라도 또 일일이 터치하지 못하는 분들이라 해도 저는 늘 마음에 품고 있지요.

제가 산에서 홀로 지내며 영의 훈련을 받고 또 공의의 값을 대신 치르며 보내는 시간들이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로

온 영

인한 은혜와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은혜와 혜택이 목자의 희생과 사랑의 대가로 내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느끼는 영혼들, 또 마음 중심에서 이에 대해 감사하는 영혼들에게는 그만큼 더 온전한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자의 권능을 널리 알리고자 하시는 섭리를 깨우치기 원합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 소식은 널리 널리 퍼져 나갔고 주변 이방 족속들은 그로 인해 두려워 떨었지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시 62:11).

왕이나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권능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였고, 주변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며 감히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펼쳐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널리 알리기 원하시지요. 성경이 참이요, 분명히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온 땅에 알릴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셨지요. 바로 저와 만민을 통해 섭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만민의 하계수련회는 해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펼쳐지는 행복과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이동하는 별, 구름의 나타나고 사라짐, 원형 무지개, 희한한 무지개, 그리고 잡자리 출현 등 만민의 하계수련회에 함께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체험해 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서 이제는 만민의 하계수련회가 세계적인 수련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재정이 들어오고 마음껏 홍보할 때가 오면 만민 하계수련회는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민의 하계수련회는 세상의 어떤 큰 경기나 행사에 비할 바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권능의 축제입니다.

셋째로, 목자의 눈물로 열매로 나온 여러분의 향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련회 전부터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주셨습니다. 몇 년 전 여러분의 모습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죄악의 사슬을 끊고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됐지요.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어졌습니다. 목자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구구절절 느껴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쉽 없이 전진하는 여러분이 됐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이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자녀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께서도 기뻐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고 마음껏 나타내 주실 수 있지요.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더 진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여러분이 선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충성이 진정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한 향이 돼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간 경작을 마친 후에는 바로 이런 향을 발하는 자녀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들어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은혜와 감동, 기회와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증거들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셔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입고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만민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 주소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 /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백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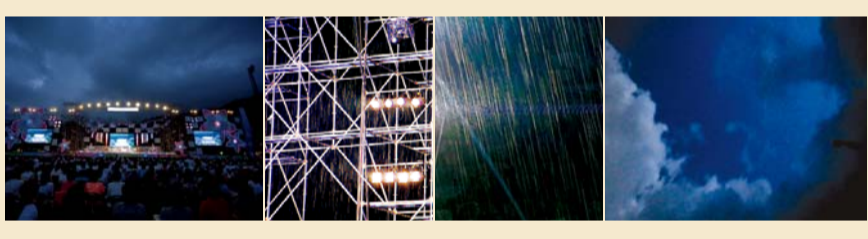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영혼 향한 하나님의 사랑 '2013 만민 하계수련회'

첫째 날 교육, 큰 비가 맞고 온갖 질병이 치료된 기사와 표적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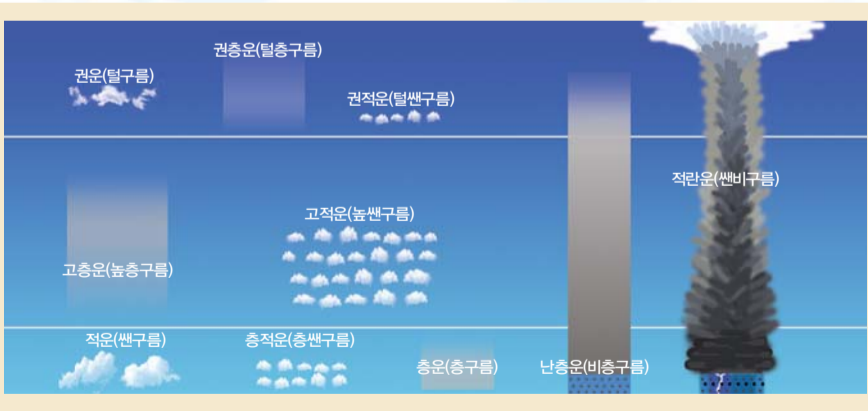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역이 폭염과 폭우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 점핑파크에서는 만민 하계수련회가 열렸다. 첫날 8월 5일 오후 7시, 교육을 위한 준비 찬양이 시작됐는데 하늘은 먹장구름으로 가득했다. 특송에 이어 사회자가 감사 소개를 하는 중 한두 방울 떨어지던 비는 점차 굵어져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감사 이재록 목사는 비를 맞으면서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교회 개척 때부터 비를 멈추게 하는 기사를 체험한 성도들도 요동하지 않았다. 이재록 목사는 교육에 앞서 성도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했다. “비야 멎으라. 비를 머금은 구름들은 흩어져라. 하늘이 보이고 별들은 나오라.”고 명한 후 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먹장구름이 흩어지고 비가 그쳤으며 파란 하늘이 열리고 별들이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비와 함께 시원한 바람도 보내주셔서 25도가 넘는 기온이 23도로 내려가게 하시고 젖은 옷도 신속히 말려주셨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기록돼 있지만 사실 비를 멈추게 하는 사건은 기록돼 있지 않다. 비를 오게 하는 썸비구름 또는 소나기구름이라 불리는 적란운은 수직으로 발달한 커다란 구름이다(그림 참조). 이처럼 두터운 구름층을 흩어지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교육 후에는 ‘환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다.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안 들리던 귀가 들리며, 목발이나 휠체어 없이도 걷고 뛰는 등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4면 참조) GCN 방송(www.gcntv.org) 생중계로 함께하던 시청자가 치료받아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구름의 높이와 모양에 따른 종류



둘째 날 체육대회, 시원한 바람 속에 만민이 하나 된 축제의 장



셋째 날 캠프파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향으로 응답과 축복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8.18~8.24
August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운영 1, 5
 - 3차 영혼육 교육 6-10
 - 일곱교회 12-16
 - 선 8-12
 - 참세기 강해 59-63, 102
 - 요한일서 강해 7-11
 - 믿음을 척량하시니 19
- GCN TV 설교**
 - 내가 시행하리니 11-15 (이수진 목사)
 - 믿음으로 걸어온 길 (이수진 목사)
 - 선택과 결과 (이미영 목사)
 - 믿음의 분량 3 (신동초 목사)
 - 기쁨 중에 변화 (김수정 목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8-9 (정구영 목사)
- 2013 여름성경학교**
 - 2013 아동세미나 - 천국과 지옥 (김수정 목사)
 - 2013 아동 파워지저스
 - 해외성회 시리즈
 - 독일연합대성회 1
 - 이스라엘연합대성회 종합편
- 찬양 프로그램**
 - 찬양과 경배 [3] 68-72, 75
 - GCN 금요찬양 스페셜 1-2, 20-22
 - 만민 찬양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12)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만민 하계수련회 시 감사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수많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 지면 관계상 그중 일부만 게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농아인 딸의 귀가 열렸습니다” 긴겔하젤브라 집사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아교회)



저희 부부는 농아입니다. 저희는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아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서울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화상(畫像, 네프시스 다중 화상 사이트)을 통해 수화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참 믿음을 갖게 돼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지난 4월, 병원에서 네 차례 검사 결과 12개월 된 딸이 농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회장님께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지요.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한 어느 날, 기도회가 끝날쯤에 들려주시는 녹음된 당회장님의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정된 담임 목사님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딸에게 얹어 주셨지요. 그 후 딸은 양쪽 귀를 자주 손가락으로 후비곤 했습니다.

저는 만민 하계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았지만 비수기 때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지요. 그리고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딸의 치료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7월 29일,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조용하던 딸이 평소와 달리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이리저리 둘러보며 행동이 부산한 것이었지요. 8월 2일,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후에는 손가락으로 안하던 의사표현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8월 5일, 하계수련회 첫날 당회장님께서 교육 후 해 주시는 환자 기도를 받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에게 무언가 물어보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가 뒤에서 “스켈라!” 하고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는 것이었지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단에서 간증했습니다. 좋은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실명된 오른쪽 눈이 잘 보입니다” 박중석 성도 (중국 1교구)

저는 2년 전 초자체 출혈(여러 가지 원인으로 망막, 맥락막, 모양체의 혈관조직에서 눈의 내부를 채우고 있는 겔 상태의 투명한 물질인 초자체(유리체) 내부로 출혈이 생기는 것)로 인해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대학 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요. 딸(박금자 집사)은 안타까워하며 제게 이번 수련회에 참석해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권유로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첫날 교육시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자 수많은 성도가 간증을 했지요. 그때 딸은 제게 “아버지! 보이세요?”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치료받아 간증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어깨를 들썩이며 한없이 눈물로 기도했지요. 그때 제 가슴도 찢어질 듯 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 날, 잠자리 한 마리가 살포시 내려와 제 팔에 얹어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잠자리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 같았지요.

이튿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명된 오른쪽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만으로도 명찰에 적힌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를 본 성도들은 서로 자신의 명찰도 읽어달라고 했지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명찰을 읽어 나갔습니다. 제 눈은 날이 갈수록 더 잘 보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젠 목발 없이도 잘 걷습니다” 정진택 성도 (2대대 16교구)



지난 8월 2일, 계단을 내려오던 중 왼발을 헛디뎠는데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내 부어올랐지요. 그날 밤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데, 지난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 살아온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사고 며칠 전, 제가 목발을 짚고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는 꿈을 꾸는 것이 떠올랐지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치료받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송윤숙 지역장님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은 후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발에 부기가 남아 있고, 걸을 수 없었지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발등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천우진 교구장님은 제게 수련회에 임하는 마음 자세와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권면해 주셨지요.

목발에 의지해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저는 첫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교육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후 환자 기도를 해 주시는 동안 지난날 세상에서 방황하며 잘못된 일들을 마음 찢으며 회개했지요. 그때 ‘일어나 나가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서 치료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간증을 하기 위해 단으로 나가려는데 과연 목발 없이 잘 걸을 수 있었지요. 저는 너무 기뻐 목발을 들고 맨 먼저 단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림.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랑만민교회 충북 괴천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청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아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흥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필포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2)528-3830,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